

충성패신보

창간 1974년 5월 20일 / 발행인 여운태 / 편집인 임문택 / 주간 황수현 /
 논설위원 황수현 송경재 민병후 / 편집담당 김진규 /
 편집국장생도 이경미 / 신문사 (054)330-3605 www.kaay.mil.kr



호국간성의 요람
육군3사관학교
 Korea Army Academy at Yeongcheon
 경북 영천시 고경면 호국로 사서함 135-1



제 188호

正論直筆로 忠誠臺의 價値創出을 先導한다.

2021년 4월 30일 금요일



정예장교를 향한 첫걸음,

꿈을 위한 최고의 선택

지원자격

정시생도	학력	4년제 대학교 2학년 이상 수료(예정) 및 2·3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연령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9세~25세 미혼남·여
예비생도	학력	2·4년제 대학교 1학년 재학생 / 3년제 대학교 2학년 재학생
	연령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8세~24세 미혼남·여

선별방법

구분	1차 시험(서류전형)		2차 시험(선발고사)		3차 시험(적성)	
정시	남	대학 성적 고교내신 또는 수능성적	영어	간부선발도구 (지적역량)	면접 / 체력검정 신체 / 인성검사	
	여					
예비	남	고교 내신				수능성적 또는 공인영어성적
	여					

모집일정

구분	지원서 접수	1차 발표	2차 시험/발표	3차 시험	최종 발표
정시	4. 26. (월) ~ 5. 31. (월)	6. 18. (금)	7. 3. (토) / 7. 16. (금)	8. 3. (화)~8. 27. (금)	10. 29. (금)
예비				7. 26. (월)~8. 3. (화)	10. 15. (금)
비고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 등 4개	

입시문의 : (054) 330-3720~23, Fax(054) 335-3444
www.kaay.mil.kr

인터넷 접수(www.univapply.co.kr)

- ① 육군3사관학교 홈페이지 접속 → ② 지원서접수배너 click →
 - ③ 회원가입 및 로그인(스마트폰 이용가능) → ④ 지원서 작성(PC이용) → ⑤ 입력사항 확인 →
 - ⑥ 수수료결제(카드결제, 계좌이체 가능) → ⑦ 수험표, 지원서, 인터넷 접수증 출력 →
 - ⑧ 구비서류 3사교 등기우송
- ★ 모집과 관련된 추가적인 세부 사항은 홈페이지(www.kaay.mil.kr) 모집 요강에서 열람 가능

2022학년도 정시생도(59기), 2023학년도 예비생도(60기) 모집

대학생·해외 유학생이 지원 가능한 유일한 편입학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가 59기 정시생도와 60기 예비생도를 모집한다. 생도에게는 2년간 교육비 전액과 품위유지비가 국비로 지원된다. 또한, 석·박사 전공 교수로 구성된 우수한 교수진과 자체 훈련장(약 432만 평) / 최첨단 디지털 강의실·도서관 등 최적의 교육 인프라가 갖추어진 환경에서 교육이 이루어진다. 2년간의 생도과정을 통해 대학 3·4학년 과정을 이수하면 2개(일반학사, 군사학사)의 학사학위가 인정되며, 전원 장교로 임관한다.

모집 인원 • 정시생도 : 550명(남자 495명, 여자 55명) ※ 既 선발된 110명 포함
 • 예비생도 : 110~165명(남자 100~150명, 여자 10~15명)



학교 교육 혁신을 위한 디딤돌 학군교류협약



주무관 김민수

봄맞이 군악대 힐링 버스킹 공연

봄을 맞이하여 '군악대 힐링 버스킹 공연'이 지난 3월 31일 도서관(11:40), 호국정(16:00)에서 진행됐다.

공연은 군악 연주(피아노, 현악, 성악, 밴드 음악 등)와 더불어 장병 즉석연주로 구성되었다. 이번 공연은 봄을 맞아 활력을 충전하고 잠시나마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주무관 길진규



▲ 학교 도서관 옆 공간에서 진행된군악대 버스킹 공연

급식 간 증식류를 재활용한 음식 시식회



▲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마늘빵, 우유 카레, 우유 도넛 튀김, 우유 슈크림빵

지난 3월 31일, 학교 내 충성식당에서 잔반/잔식처리 최소화를 위해 잔여 증식류를 재활용하여 음식을 만드는 시식회를 진행했다.

이번 시식회는 주로 남은 증식류인 우유, 사과, 빵 등을 활용하여 우유 튀김, 우유 슈크림빵, 리코타 치즈 등 9개 음식으로 재탄생시켜 큰 호평을 얻었다. 이후 새로운 음식들은 선호도 조사 후 선호도가 높은 메뉴는 지속적으로 급식(간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주무관 길진규

2021년 첫 충성의식



▲ 충성의식 중 분열을 진행하고 있는 사관생도들의 모습

2021년의 첫 충성의식이 지난 4월 2일 충성연병장에서 거행되었다. 충성의식이란 사관생도들이 격주 금요일에 예복을 착용 후 경건한 자세로 지난 일주일간의 생활을 반성하고, 다음 한 주의 생활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지휘근무생도의 지시사항을 듣고 자율의 결의를 새롭게 다짐하는 의식 행사이다.

주무관 박원형

충성대신문 제188호 주요 기사

- 02 학교소식 | 학교교류협약 등
- 04 기획취재 | 학교 교육혁신 새로운 도약
- 06 생도광장 | 생도생칠지도
- 08 사진 콘테스트 | 렌즈에 담긴 학교의 순간들
- 10 오피니언 | 사설·서평
- 12 교양 | 사회저명인사 길림
- 13 동문소식 | 동문(同門)의 소리/이의공
- 16 발전기금 | 발전재단 소식



<사진제공> 상병 변준연, 일병 노승찬, 강진

민·관·군 에코트리 캠페인 개최

정부의 탄소중립전략기여, 학교 주변 돈사악취 저감기대

지난 4월 1일, 학교장(소장 여운태) 주관으로 민·관·군 관계자와 학교 장병이 참석한 가운데 '에코트리 캠페인' 행사를 가졌다.

이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KB국민은행, 테트라팩 코리아는 3천만원 상당의 잣나무 651그루를 지원하였다. 이 행사는 온실가

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통해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전략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학교 주변의 돈사 악취를 줄여줄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 에코트리 캠페인 : 기업이 환경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을 환경부에 기부하고, 육군과 환경부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환경부가 육군 녹색화를 위해 나무를 심는 민·관·군 식목행사
대위 이지수



▲ 민·관·군 에코트리 나무심기 행사에서 학교장(소장 여운태) 등 참석자들이 기념 식수를 하고 있다.

제1회 육군전사 군인본분 PT챌린지 대상 수상

위국헌신·군인본분 정신드높인 학교 용사들

지난 1~2월 육군이 정신전력교육 성과를 높이기 위해 진행한 제1회 '육군 전사 군인본분 PT 챌린지' 대회는 육군 예하 각급 부대에서 개인·팀별로 총 694편의 콘텐츠가 출품되었다.

이중 부대별 예선(군단급)에서 엄선된 우수작 14편을 대상으로 진행된 비대면 육군

본선심사 결과 육군 핵심가치를 인터뷰 형식으로 풀어낸 3사관학교 공보정훈실 변준연 상병, 노승찬·강건 일병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 PT 챌린지 : 장병 각자가 교육 주제를 연구한 다음 강연 등의 콘텐츠를 기획·제작하는 장병 참여형으로, 부대원들과 함께 모여 소통하는 정신전력교육의 새로운 방식

주무관 길진규



▲ 대상을 수상한 육군3사관학교 강건·노승찬 일병, 변준연 상병(왼쪽부터)

57기사관생도 코로나 극복 동참, 기부금 전달

위기속에서 한마음 한뜻 작은정성 보태

57기 사관생도 495명은 지난 3월 5일, 성금 700만 원을 희망브리지 전국 재해구호협회에 기부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술교류 등의 대외활동이 축소되면서 사용하지 못한 동기회비를 기부하기로 마음을 모은 것이다.

기부금 전달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교내 비전관에서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57기 동기회장인 조용준 생

도 등 5명은 화상으로 기부금 전달 취지를 설명하고 필요한 곳에 사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부금은 소상공인과 의료진, 방역 취약계층을 돕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생도들은 지난해 3월에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250여만 원을 기부한 바 있다.

이밖에도 생도들의 개별적인 성금·방역마스크 기부도 계속되는 중이다.



▲ 57기 김선규·김민현·조용준·장효진·이은정 생도(왼쪽부터)



▲ 생도들이 기부금 전달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21년 올해의 우수 교수 선정



최우수 교수 - 김우람 소령(기계공학파)

지난 3월 10일, 학교는 '올해의 우수 교수' 3명을 선정, 시상했다. 전체 교수 중 최우수 교수에는 김우람 소령(기계공학파), 우수 교수에는 정병삼 중령(심리학파), 이정열 소령(경제경영학과)이 각각 선정됐다.

학교는 매년 교수 업적평가보고서에 따라 1차에 3~5배수의 인원을 뽑은 뒤, 2차로 진행되는 공정하고 엄격한 심의에 따라서 최우수 교수 1명, 우수 교수 2명을 선정해 오고 있다. 주무관 김민수



우수 교수 - 정병삼 중령(심리학파)



우수 교수 - 이정열 소령(경제경영학과)

미래 전장을 주도할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육군3사관학교의 새로운 도약!

- ① 교육과정 혁신: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전공학과 및 학점체계 개편
- ② 교육 인프라 확대: 포스텍 등 40개의 대학 학군교류 활성화로 교육 인프라 확대
- ③ 코로나 19와 MZ세대 특성 고려, 온라인 홍보 강화: SNS, 유튜브 채널 운영 등

‘도전 50년, 도약 100년’, 1968년 개교 이래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와 군이 요구하는 정예장교 15만 7천여명을 배출한 명실상부한 ‘호국간성의 요람’ 육군3사관학교(학교장 소장 여운태)가 육군 비전 2050을 주도할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변화와 혁신을 담은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 병 복무기간 단축, 각급 대학의 치열한 모집경쟁, 코로나 19로 인한 대면홍보 제한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에 의해 사관학교에 유입되는 인재들이 감소하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도전요인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미래 주역의 담대한 꿈을 구현하기 위해 학교는 ①교육 혁신 ②외연 확대와 선발제도 개선 ③소통강화를 새로운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교육혁신’을 통해 특성화된 교육체계를 지향한다.

대학 고등 교육기관과 장교 양성기관이라는 사관학교의 핵심가치를 균형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일반학 및 군사학 교육체계를 재정립하였다. 4학년 교육과정을 강화하여 일반학 48학점과 군사학 48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전적대학의 학점을 포함하여 총 140학점 이상의 학점을 이수하도록 교과과정을 개편하였다. 미래 전장환경을 주도할 창의적인 국방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인문학, 사회학, 이학, 공학 등 4개 학처 12개 전공 과정에 올해 처음으로 융합전공학과인 안보통상학과와 로봇공학과를 신설하였다.



‘21년 전공학과 편성 인문학 전공 3개, 사회학 전공 3개, 이학 전공 3개, 공학 전공 3개/융합전공 2개

학처	인문학			사회학			이학			공학		
일반 전공	영어학	심리학	군사 사학	경제 경영학	정치 외교학	법정학	컴퓨터 과학	국방 시스템 과학	화학 환경 과학	기계 공학	전자 공학	건설 공학
전문 분야	연합 작전	심리전 및 PTSD	전쟁사 및 군사사	예산 및 조직 관리	안보 및 국제 정책	군 행정 및 군법	사이버 및 AI	위게임 및 Big Data	군 환경 및 CBRN	국방 과학 및 Rdot	정보 통신 및 Drone	방호 및 WMD
융합전공	안보통상학						로봇공학					



둘째, 교육 인프라 확대와 선발제도를 개선하였다.

올해 수도권 2~3년제 Top 13 대학 중 7개교와 협약을 체결하였고, 6개 대학과는 현재 협의 중에 있다. 특히 최근에는 경북대, 포항공대와 교류협력을 체결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가시적인 외연확대에 나서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인재 선발을 위한 특별전형 제도를 도입하고, 사전 선발된 예비생도에 대한 입교 전 관리를 강화함은 물론, AI를 활용한 면접제도를 적용하는 등 선발제도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셋째, 코로나 19 환경과 MZ세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 홍보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온라인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육군 예하부대 중 최초로 부대 공식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계정과 유튜브 계정 등 온라인 홍보 플랫폼을 모두 구축하여 본격적으로 운영 중에 있다. 물론 사관생도들의 일상생활과 교육과정 등을 소재로 한 다양한 콘텐츠 제작과정에는 생도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대학 재학중인 학생뿐만 아니라 복무 중인 용사, 부사관들에게 또 다른 미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온라인 소통의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육군3사관학교는 대학 2년 과정을 마친 대학생이 지원할 수 있으며, 3~4학년 과정으로 편입 후, 2년 간의 생도교육을 마치고 졸업과 동시에 육군 소위로 임관한다. 1학년 대학생이 지원하는 예비생도 선발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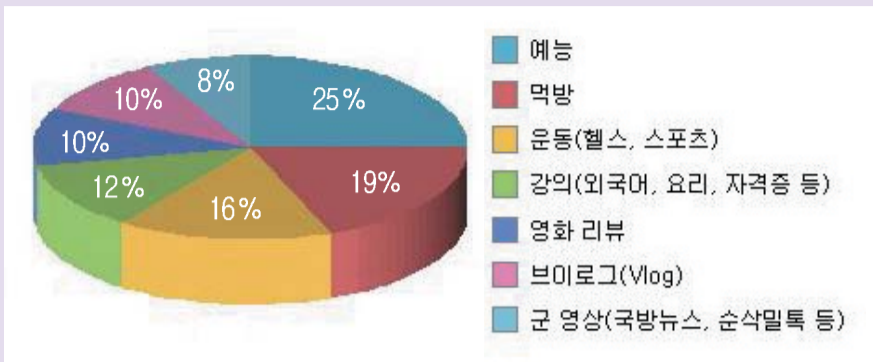


넷째, 학교 연구기관인 충성대연구소는 미래 육군을 선도할 연구과제를 도출하여 해법을 다각도로 찾고 있다.

현재 ‘미래 학위교육체계’, ‘콘크리트 3D 프린팅 기술적용 군 시설 건설방안’ 등 학교발전 과제, 육군정책 과제, 일반과제가 심도있게 진행 중이다. 한편, 학교는 사관생도들의 학업 전념여건 조성 및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임관 시 일정 비율 장기복무자를 우선 선발하고, 단계적으로 장기복무자를 자체 선발하는 방안,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입교한 생도에게 최적의 맞춤형 교육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정책부서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대위 이지수

생도 앙케이트

생도대 속의 유튜브(Youtube) 생도들의 Youtube 시청 선호도



경우 바쁘고 통제된 생도 생활 속에서 기분전환 및 사회와의 소통을 위해 생도들은 주로 예능을 시청하고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단순한 예능방송뿐 아니라 군대가 콘텐츠가 되는 예능을 통해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지식과 더불어 예능 속 군대를 통해서 이전의 실무 이야기를 간접 경험하면서 흥미를 찾고 있었다.

다음 순위는 먹는 방송이다. 다양한 먹방을 보며 대리만족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순위로는 운동이다. 체력이 국력이라는 말이 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생도들은 운동에 관한 영상들을 많이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는 생도들의 관심사에 맞추어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코로나로 찾아올 수 있는 무기력감을 생도들은 다양한 체육활동과 더불어 운동 유튜브를 통해 해소하

고 있다. 이외에도 생도들은 강의를 통해 외국어, 요리, 자격증 등을 공부하거나 영화 리뷰를 시청하는 생도들, 유튜브 버들의 브이로그(Vlog)를 감상하는 생도들도 많았다. 특히, 순위는 낮지만 군 관련 영상인 국방뉴스, 순삭밀톡, 웹드라마 백발백중 등 국방부 채널의 영상 등을 통해 육군의 공식적인 입장과 핵심가치, 정예장교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병과 지식, 무기 소개 등)도 습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위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생도들의 유튜브 선호도 순위 결과를 참조하여 콘텐츠를 영상에 접목한다면 생도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정형화된 방식으로 학교를 소개하기보다 예능, 브이로그, 체력단련 영상 등 일반인들과 생도들이 공통으로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콘텐츠를 활용하여 제작하면 더욱 효과적인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57기 기자생도 류인성, 원종량, 장석수

직업선택의 폭이 더욱 다양화되고 있다. 최근 학생들의 직업희망 상위권에는 늘 '유튜브(Youtube) 크리에이터'가 있다. 이렇듯 유튜브라는 미디어 매체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가장 쉽고 빠르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매체로 자리매김하였다.

현재 모집 홍보 기간이 다가오고 있다. 59기, 60기 생도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가장 쉽고 빠르고 영향력이 있는 유튜브 매체를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면 어

떠한 기대효과가 있을지 조사하기로 해 보았다. 생도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유튜브(Youtube) 시청 선호도 설문 조사에 응한 약 980명의 생도들의 응답 결과 1위 예능(25%, 240명), 2위 먹방(19%, 180명), 3위 운동(16%, 160명), 4위 강의(12%, 120명), 5위 영화 리뷰(10%, 100명), 6위 브이로그(Vlog) (10%, 100명), 7위 군 영상(국방뉴스, 순삭밀톡 등) (8%, 80명) 순으로 응답이 나왔다.

먼저 1위를 차지한 예능이다. 예능의

사관생도, 타바타(TABATA) 운동 실시

<p>00:20</p> <p>점핑잭 비디오 넓은 확산 다리와 정프와 손은 양쪽에서 함께 발과 팔의 위치로 복귀, 오버 헤드 감동. 이 운동은 큰 근육 그룹의 모든 이동, 전신 운동을 제공합니다.</p>	<p>10</p> <p>팔굽혀펴기 비디오 올리고 팔을 몸을 낮추고, 바로 당신의 몸을 유지, 이 운동은 가슴, 어깨, 상두근, 등, 다리의 근육을 작동합니다.</p>	<p>5</p> <p>런지 비디오 다른 다리가 뒤에 위치하는 동안 바닥에 무릎을 구부리고 발 평면 앞으로 한쪽 다리를 놓아. 런지는 대퇴사 두근, 대둔근뿐만 아니라 햄스트링을 강화한다.</p>	<p>10</p> <p>리버스 크런치 비디오 바닥에 누워 무릎을 굽히고 두 다리를 90도 각도로 올립니다. 배에 힘을 주어 숨을 내쉬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다리를 내립니다. 이 동작을 반복합니다.</p>	<p>10</p> <p>스쿼트 비디오 다시 엉덩이를 이동 및 수직 위치로 복귀 한 후, 몸통을 낮추기 위하여 무릎과 엉덩이를 구부리는. 포그리고 앉아서 기차 허벅지, 엉덩이, 엉덩이, 쿼드, 오금의 힘줄,뿐만 아니라 하체 주요 근육.</p>
---	---	--	--	---

생도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 체육학처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바로 단시간에 근력과 유산소 두 가지를 모두 잡아 체력을 올릴 수 있는 타바타(TABATA) 운동이다. 타바타 운동은 일본의 운동 생리학자인 타바타 이즈미가 1990년대 개발한 방법이다. 한국에서는 간헐적 운동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야외나 체육시설이용이 제한되어 홈 트레이닝이 유행하게 되면서 타바타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현재 생도들이 실시하고 있는 타바타 프로그램은 점핑잭, 푸시업, 크런치, 스쿼트, 런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비교적 쉬운 동작들로 운동에 익숙지 않은 생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으며, 신나는 음악을 통해 운동의 즐거움 또한 더했다. 앞으로 타바타를 통해 생도들의 체력이 더욱 증진되어 체력에 자신감을 가진 사관생도들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 타바타운동을 실시하고 있는 생도들

57기 기자생도 이경미, 지하은

사관생도의 생활 / 생도생활지도

57기기자생도 이용탁



사관생도들의 정기 생도생활지도는 매월 1주 차, 3주 차 금요일에 실시된다. 1주 차는 생도 지휘근무생도 주관으로 실시하고, 3주 차는 훈육관 주관으로 실시한다. 생도생활지도에서는 생도자치 지휘근무자들이 '생도 목표지향적 자기계발이행실태', '인원들의 위생 및 건강상태', '시설, 비품 및 보급품 보존, 관리상태' 등과 같은 사항들을 점검한다. 이러한 생도생활지도를 통해 생도들이 자율적으로 자신과 동기, 후배 생도들의 생활을 점검함으로써 미래의 육군 정예 장교로서 부대를 어떻게 관리하고 점검해야 할지 스스로 깨닫는 경험도 얻을 수 있다.

간식들을 다 해치웠다. 늘어난 보급품, 개인 물건이 많아진 관물대, 담당 청소 구역 등 무엇 하나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 생도생활지도 시작 후 복도에서 들려오는 예도가 부딪히며 내는 찰랑거리는 소리와 가까워지는 발소리들은 당일 보고지었던 나에게 긴장감을 주었다. 그래서 중간중간 목도 풀어보고 혹여나 내가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 하고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도 해보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아무도 들어오지 않으셔서 끝날 때까지 열중쉬어 자세로 한참을 서 있었다. 상관이 지나가실 때마다 차렷하기만을 반복하다 보니 발도 아프고 팔이 저렸지만, 막상 끝나고 나서는 엄청난 과제를 끝낸 것만 같아서 개운했다.



58기 김수현 생도

첫 생도생활지도 소감문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맞은 생도대에서의 첫 생도생활지도는 나에게 폭풍과도 같았다. 이를 전 밤부터 몰래 생활관 동기들과 침실에서 졸음과 싸우며 바닥에 찌는 때를 뒹고 지우개와 물티슈로 벽과 가구에 있는 얼룩들을 온 힘을 다해 지웠다. 그리고 기초군사훈련 간 받았던

처음엔 어떻게 하나 했는데 막상 허무하게 끝나니 아쉽기도 했고 다음번에는 열심히 해서 꼭 칭찬받고 말겠다는 각오도 다짐했다. 또한, 무엇보다 준비 하면서 힘들었지만 그만큼 생활하는 환경이 정돈되었고 군기가 잡히는 기분이 들어서 좋았다. 기초군사훈련과는 너무나도 다른 생활관의 모습엔 설렘과 편안함이 있지만 주어진 자율에는 우리가 지켜야 할 '명예' 라는 책임감의 무게가 있다. 자율에 관한 책임을 위해 항상 나 자신에게 혹독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에게 생도생활지도는 항상 초심을 잃지 않게 해주는 알람시계와 같다. 신독의 자세를 지켜나가며 긴장을 놓지 않고 사소한 것에도 온 힘을 다하겠다는 처음 그 다짐을 잊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선배가 되어 사랑하는 후배들과 사진도 찍고 꽃냄새를 맡으며 함께 걸어다니는 순간들이 너무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것 같다.

57기기자생도 정용수, 황선관

생도들의 일문일답 / 지금 생도들은?

총성대의 새봄이 찾아왔다. 칼바람이 몰아치던 겨울에 뜨겁게 훈련을 받으며 정예장교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백린 57기도, 모든 것이 낯설고 혹독한 추위 속에서 멋있게 기초군사훈련을 수료한 화운 58기도 봄을 만끽하고 있다. 봄을 맞이하는 생도들의 기분과 더불어 곧 있으면 시작될 중간고사를 준비하는 다짐도 들어보자. 또한, 우리 학교에는 다른 사관학교들에 없는 특별한 활동이 있다. 바로 '생도홍보출장' 선배, 후배 사관생도들이 직접 후배 기수생도들을 모집하는 활동이다. 생도 홍보출장을 통해 생도들은 오랜만에 사회로 돌아가는 설레는 마음과 자신의 노력으로 직접 훌륭한 후배를 모집하겠다는 열정을 불태운다. 다양한 생도들과 즉석 일문일답을 진행해보았다.

Q. 총성대에서 봄을 맞이하는 기분

A. 총용관 앞에 핀 꽃들이 너무 이뻐서 일반학 수업을 마치고 복귀할 때마다 힘든 것이 눈 녹듯이 사라진다. 매일매일이 봄이었으면 좋겠다.

58기 사관생도 이수빈

A. 바쁜 일과 속에서 총용관부터 호국정까지 예쁘게 피어있는 꽃들을 보면 나에게 큰 힘이 되어준다. 예쁘게 피어있는 꽃들처럼 선배 생도님들과 동기들 모두 항상 밝고 빛나는 생도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58기 사관생도 지영인

A. 작년에 느꼈던 봄과 또 다른 느낌이라고 생각한다. 총성대의 문을 열고 들어온 작년 이맘때 선배님들과 벚꽃을 만끽하던 것이 엇그제 같은데, 이제는



Q. 다가올 중간고사에 임하는 각오 한마디

A. 입교한지 어느덧 3개월이 지났지만 총성대에 첫 발을 내딛는 시험이기에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58기 사관생도 김원영

A. 기훈때 했던 다짐 중 하나가 '바쁜 생도생활 중에도 일반학 성적을 놓치지 않겠다'였다. 그렇기에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 중간고사에 임할 것이다.

58기 사관생도 신동현

A. 4학년으로 맞이하는 첫 중간고사인데 임관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높은 명예심을 가지고 좋은 결과를 거두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 더불어, 전 생도들이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다. 백린 57기, 화운 58기 파이팅!

57기 사관생도 조용준

Q. 홍보출장에 임하는 각오

A. 학교를 대표하여 나가는 만큼 행동과 언행이 곧 학교의 이미지라 생각하며 더욱 행동을 바르게 하겠다. 자랑스러운 후배 생도들을 직접 모집할 수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며 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58기 사관생도 강민성





문화체육활동부서 소개

태권도부, 유도부

지난호 첫 번째로 소개했던 부서인 응원부에 이어서 두 번째로 소개할 부서는 태권도부와 유도부이다. 사관생도들의 취미와 특기 함양을 위해 마련된 문화체육부서 활동 시간. 충성대 신문사와 함께 열정적인 그들을 취재하러 가보자.

처음으로 도착한 곳은 정무관이었다. 이곳 정무관에는 태권도장 유도장, 검도장, 수영장 등 다양한 시설이 존재한다. 어디로 가볼까 고민하던 그때! 어디선가 천둥과 같은 기합 소리가 들려왔다. 하늘로 쭉 뻗은 다리, 바위라도 부술 듯한 정권 지르기 전사(戰士)와 같이 우렁찬 기합을 지르는 그들 태권도부. 태권도부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Q. 간단한 본인 소개와 태권도부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태권도부장인 4학년 변규욱 생도입니다. 태권도부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무술인 태권도를 배우고 연마하는 부서입니다. 훌륭한 교관님들과 선수 출신의 조교들이 열정적으로 지도해주고 있어 유단자와 무단자를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재미있게 태권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Q. 태권도를 배우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A. 태권도는 품새, 겨루기, 시범 발차기 등의 동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작들은 유연성과 순발력을 길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태권도를 배우니 나날이 유연해지는 게 느껴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효과를 몸소 느낄 수 있습니다.

Q. 태권도부만의 장점이 있다면?

A. 태권도부만의 장점은 일단 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정무관 내에 위치한 도장에는 안전을 위한 두꺼운 매트와 태권도부 활동을 위한 여러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넓고 쾌적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사관생도들이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에도 자유롭게 태권도 연습이나 여러 운동 활동을 하기에 좋습니다.

Q. 태권도부가 올해 계획 중인 것이 있다면서요?

A. 태권도부는 올해도 충성제 때 진행되는 태권도 시범을 위해 기술 발차기와 멋진 퍼포먼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실력이 출중한 인원들이 많이 합류하여 작년보다 더 퀄리티가 높은 시범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태권도부를 인터뷰하고 나오는 길, 어디선가 땅이 울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바닥을 뒹굴며 매트 위에서 구르고있는 유도부였다.

Q.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와 유도부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유도부장인 4학년 장민성 생도입니다. 유도부는 57기 25명, 58기 21명, 총 4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훈육관인 손수영 대위를 필두로 부서원 전원이 하나 되어 열심히 훈련 중입니다.

Q. 참, 아까 바닥을 굴러다니시던데?

A. 그건 유도부의 준비운동 중 하나인 구르기 동작입니다. (웃음) 유도부 훈련은 준비운동, 부딪히기, 굳히기, 자유 연습 순으로 진행됩니다. 준비운동의 경우 다른 체육부서들과는 다르게 누워서 하는 동작이 많고 특히 구르기를 많이 실시합니다. 또한, 부딪히기는 자신의 기술을 연마하는 훈련이고 굳히기나 자유 연습은 유단자가 무단자를 지도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Q. 이번 유도부 지원율이 상당했던 것으로 아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A. 부서장으로서 유도부 지원율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생도들이 문화체육부서 활동을 일반화 기간에 실시하기 때문에 정적인 활동보다는 동적이면서도 단증도 취득할 수 있는 유도부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Q. 유도부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떤 걸까요?

A. 유도부를 대표하는 단어는 제가 제일 좋아하기도 하는 단어인 유능제강(柔能制剛)입니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제압한다는 뜻으로 유도부의 특징을 잘 말해주는 단어 같습니다.

Q. '유도가 이것 딱 하나만큼은 다른 무도보다 좋다!' 라는 점은?

A. 유도는 다른 무도와는 다르게 공격하는 무도가 아닌 자신을 방어하는 무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뛰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가장 좋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하하).



발차기를 하는 변규욱 생도(4학년)



유도부 훈련 모습

지금까지 학교의 문화체육부서인 태권도부와 유도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다. 자신의 발전과 실력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들의 모습은 이곳 충성대가 정에 장교양성의 요람임을 방증하는 장면이었다. 다음에는 어떤 부서를 만나게 될지 모두 기대하시라!

57기 기자생도 박군호, 주성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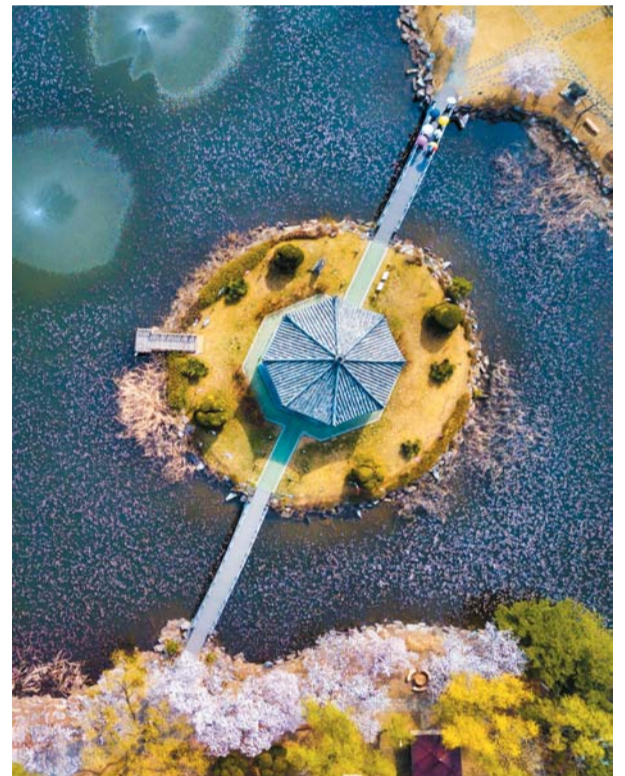
육군3사관학교 태권도부



① 대상 - 57기 사관생도 김성준(봄은 화랑이로다)



② 우수 - 7훈육대장 소령 이진혁(훈육관과 생도)



③ 우수 - 정보통신대 장소령 신진철(위에서내려다 본 호국정)



④ 우수 - 57기 사관생도 송용민(6중대, 봄을 든다)

렌즈에 담긴 학교의 순간들



학교전경
봄 사진

콘테스트



Korea Army Academy at Yeongcheon



5 장려 - 군사사학과 소령 (진) 나상철(아빠와 딸)



6 장려 - 58기 사관생도 정은수(드리운청춘)



7 장려 - 58기 사관생도 최윤서(수류회개)



8 장려 - 57기 사관생도 이윤(한 쪽의 그림 같은 호국정)



9 장려 - 57기 사관생도 김동찬(감성 총만 작가)



10 장려 - 57기 사관생도 박보희(호국정의 봄 빛)



11 우수 - 군수계획과 (슬기로운 병역 봄 나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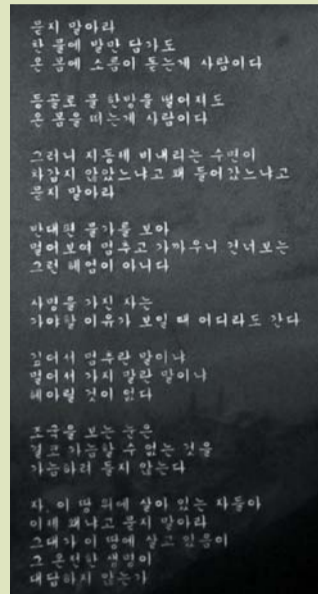


사설

승고한 기억

중령 송경재

최근 바다 달팽이라고 불리는 연체동물 ‘군소’가 인기다. 과거 ‘삼시세끼’라는 TV 방송에서 소개된 후, 유튜버들의 소위 ‘떡방’의 단골 재료로 나오고 있다. 사실 군소는 다른 동물에 비해 신경세포의 수가 약 2만 개로 적고 그 크기도 커서 신경회로에 관한 연구재료로 많이 쓰인다. 미국 신경과학협회(The Society for Neuroscience)에 발표된 군소에 관한 재미있는 연구가 있다. 일반적인 군소는 몸을 건드리면 약 10초간 몸을 움츠린다. 연구팀은 훈련을 통해 50초간 몸을 움츠리도록 만들었다. 자극에 민감하도록 만든 것이다. 이후 훈련된 군소의 RAN(리보



▲故 고승완이민성 중위 추모 현시

핵산)을 훈련을 받지 않은 군소에 이식하였다. 그러자 훈련되지 않은 군소도 몸을 건드리면 약 40초 동안 몸을 수축하였다. 마치 기억을 이식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아주 먼 미래의 일이겠지만, 언젠가는 좋은 기억을 저장하고 공유하며, 나쁜 기억은 지워버리는 세상이 올 수도 있겠다.

인간의 기억은 제한적이다.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은 깨끗이 지우는 것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 슬픈 사건에 대한 망각이 현재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생도들에게 죽을 때까지 반드시 간직

하고 싶은 기억을 물어보았다. 평생 고생만 하신 어머니의 웃는 얼굴, 지금은 볼 수 없는 가족과의 식사장면, 외국 여행 중 보았던 압도적인 자연경관 등을 간직하려고 한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싶은 것은 개인의 경험과 삶에 관한 아름다운 일들이다.

우리 학교 1중용관과 2중용관 사이에는 두 개의 흉상이 있다. 흉상의 주인공들은 2015년 3월 임관하여 4월 28일 보병학교에서 훈련 중 순직한 **故 고승완**(리더십, 현 심리학 전공) **이민성**(프랑스어 전공) 중위이다. 두 신임 장교는 보병학교에서 진행된 국지도발 대비작전 훈련 간 실전과 같은 훈련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수중으로 침투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이들은 쉬운 방법을 찾아 타협하지 않고 힘들고 정의로운 길을 선택하여 삶을 마감한 군인들이다. 충성대에서 배운 명예와 신의를 몸소 실천한 것이다. 불과 5, 6년 전 일어난 일임에도 흉상 제막식을 한 2016년 이후 이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많은 사람이 익숙하게 지나가는 길이라 더러는 그곳에 흉상이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는 자기 일이 아니면 기억하지 않는다. 아마도 슬픈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아프고 슬프다고 기억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슬픔과 추모의 마음을 전승하기 위해,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군소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 자극을 학습하고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도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지키기 위해, 선배 전우들의 승고한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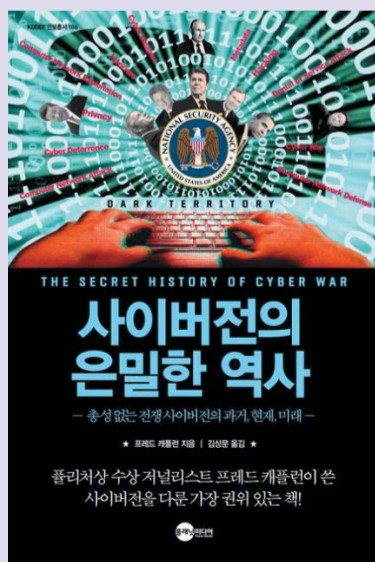
심리학과 교수와생도들은 매년 4월 넷째 주에 흉상 앞에서 추모 행사를 가진다.

▲故 고승완 이민성 중위의 흉상

서평

사이버전의 은밀한 역사, 플래닛미디어

소령 박동휘인문학처 군사사학교수



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기에 저자 카플란은 주저할 없이 사이버공간을 ‘통제되지 않는 구역(Dark Territory)’으로 정의했다. 이는 북미대륙의 철도산업이 광대한 영토에 설치한 레일 중 신호를 통해 통제할 수 없는 구간을 부르던 전문용어였다.

그렇다면 카플란은 사이버전을 설명하기 위해 온갖 전문용어를 늘어놓았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다행히도 저자는 컴퓨터 전문가가 아닌 이야기꾼인 저널리스트이다. 그는 사이버전을 소개하기 위해 다양한 해킹 기술과 메커니즘을 제시하지 않는다. 책은 오히려 사이버전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수많은 역사적 숨은 에피소

드로 가득하다. 책은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1983년 한가로운 주말 시청한 영화 <워게임스, Wargames>를 통해 사이버공간의 안보적 중요성을 인지한 흥미로운 에피소드로 시작한다.

“쉬운 서술방식, 구성, 전문적인 내용으로 사이버전에 대한 독자의 갈증을 해소”



다. 그리고 대부분의 일반 독자처럼 컴퓨터에 무지했던 레이건 대통령은 업무로 복귀 후 미군 서열 1위 합참의장을 만나 영화가 묘사한 ‘이런 일(사이버전)이 정말 가능하겠소?’하고 물었다. 이는 단순한 사건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미국이 사이버전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된 계기였다.

저자 카플란은 총 15장에 걸쳐 앞선 내용과 같은 흥미로운 에피소드를 많이 담아내어 자칫 어렵게 느껴질 법한 사이버전을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친절을 베풀고 있다. 물론, 쉬운 서술방식과 구성에도 불구하고, 그의 책은 전문적인 내용을 놓치지 않으므로써 사이버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원하는 독자의 갈증도 동시에 풀어주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전에 대해 깊게 알고 싶지만 어렵고 고리타분한 컴퓨터 전문용어의 나열이 싫은 분들부터 가볍게 역사책 읽기를 좋아하는 분들에 이르기까지 누구에게나 이 책을 감히 추천해 본다.

서지 정보
 신국판(153×225) | 정치사회, 역사, 군사·국방 |
 프레드 카플란 지음 | 김상문 옮김 |
 도서출판 플래닛미디어

사회 저명인사 칼럼

휴머니즘적 사고와 포스트 휴머니즘적 사고

이찬 규(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약 700만 년 전 인류의 조상들은 영장류로부터 갈라져 나와 진화에 진화를 거듭하여 지구의 주인으로 살아왔다. 그런데 신석기 시작 시기를 대략 기원전 15,000여 년 전으로 잡고 있으니, 인간은 인류사 대부분을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자연의 일부로 살아온 셈이다. 그러다가 기원전 5000년 무렵 청동기 시대부터 인간은 본격적으로 자연을 가공하기 시작했으며, 사유 재산, 대집단이 만들어지고 문자를 사용하면 서부터 서서히 자연과 구별되기 시작한다.

청동기로부터 시작된 문명의 비약적인 발전과 인간 의식의 변화는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수레의 두 바퀴처럼 굴러왔다. 자연선택으로부터 더 강력한 힘을 지닌 '신'을 숭배하다가 결국 14세기에 이르러 르네상스라는 사회적 운동을 통해 인간'을 세상의 중심에 두는 휴머니즘(인본주의)이 태동하였다. 르네상스 이후 휴머니즘의 영향으로 시민들의 힘은 커졌으며, 지구상에서 민주주의는 거역할 수 없는 대명제가 되었다. 이로써 인간은 명실상부한 지구의 지배자가 된다.

그러나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는 이 생각은 점차 확장되고 왜곡되어 차별과 자연 훼손이라는 부작용을 낳게 되었다. 과도한 휴머니즘적 사고는 인간에 대해 비인간을 차별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갖게 되었으며, 이러한 차별 의식은 인간 사회 내부에도 적용되어 백인우월주의와 같은 그릇된 편견으로 이어졌다.

인간중심적 사고가 물질주의에 대항하는 순기능적 역할을 하는 한편으로 무분별한 개발을 통해 자연을 쉽게 훼손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서 인류는 환경 파괴라는 커다란 재앙을 맞이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다가 문명의 발전 속도는 엄청

포스트 휴머니즘이 지향하는 핵심 가치

- ① 인간이 지구상의 가장 존엄한 존재이기 이전에 자연의 일부라고 인식
- ② 우주의 중심이 인간이 아니라 탈인본주의적 입장을 기반으로 비인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비인간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 ③ 인간이외의 생명체뿐만 아니라 기계나 물질과도 공존해야 한다고 생각



나게 빨라져서 21세기는 20만 년 전 시점으로 보면 2만 년에 해당할 정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의 의식이 문명의 발전을 따라갈 수조차 없을 지경이 되었다. 이러한 휴머니즘이 한계를 드러내자 21세기에 들어 이에 대한 반성으로 포스트 휴머니즘(초인본주의, 탈인본주의)이 등장한다.

2000년대 초까지 우리가 애완동물이라고 칭하던 강아지나 고양이가 어느 날 갑자기 반려견, 반려묘로 불리기 시작한 것이나, 남녀차별에 관한 인식 전환 등도 포스트 휴머니즘적 사고가 불러온 긍정적인 결과 중 하나이다. 포스트 휴머니즘은 현대 인간 사회에 만연한 혐오와 차별, 자연 훼손과 파괴를 멈추고, 인간의 삶을 조화와 공존 속에서 영위해 나가자는 점에서 휴머니즘을 보완하는 성격을 지닌다.

지구에 살고 있는 구성원 모두가 지금 당장 휴머니즘 사고로부터 벗어나 포스트 휴머니즘적 사고로 전환하기는 어렵겠지만 21세기의 시대 정신인 포스트 휴머니즘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동시대인들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삶의 방식이 아닐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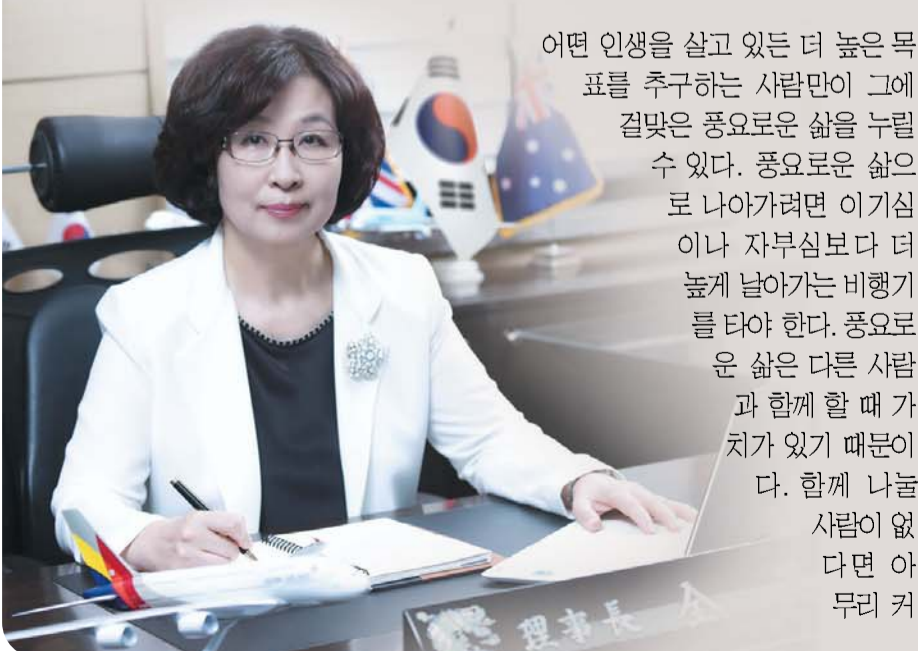
사회 저명인사 칼럼

풍요로운 삶

전영 숙(재)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 이사장

아세아 항공직업전문학교에서는 졸업 후 많은 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목표를 향해 떠나갔다. 학생 중에는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선택해 인내하고 노력하여 성공한 학생도 있고 도중에 포기한 학생들도 있다.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풍요로운 삶을 보장받기 위한 가장 강력한 행동이다.

사회학자들은 인간을 환경의 동물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유전학자들은 인간의 미래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생이 살아가는 방식, 특히 시간을 이용하는 방법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에는 양쪽 모두 동의한다. 과거 속에서 머무르고 있는 사람은 현재의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없다. 어떤 현자는 "어제는 지불이 정지된 수표이고, 내일은 지불이 약속된 어음이며, 오늘 우리는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현금이니 현명하게 써라"라고 말했다. 과거 속에 머무르는 사람은 현재를 낭비하고 나아가 미래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중대한 부정을 저지르는 것이다.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 더 높은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만이 그에 걸맞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 풍요로운 삶으로 나아가려면 이기심이나 자부심보다 더 높게 날아가는 비행기를 타야 한다. 풍요로운 삶은 다른 사람과 함께 할 때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면 아무리

다란 성공을 거두었다고 해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성공은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성공은 다른 사람과 함께 연대하며 서로 도와주면서 동행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사랑과 기쁨, 평화와 같은 높은 삶의 질을 이루는 것이고 그때 진정으로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사랑이 제일인 이유는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걱정하기 때문이다. 만약 사람들이 진정으로 서로를 아끼고 보살핀다면 세상은 지금과 같지 않을 것이다. 사랑이 근심을 함께 나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것으로 고대 헤브루의 전설을 보면 알 수 있다.

아주 오래전, 두 형제가 나란히 붙어 있는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다. 형은 대가족을 거느리고 살았고 동생은 혼자 살았는데, 추수를 끝낸 어느 날 밤 형은 생각에 잠겼다. "동생은 독신이기 때문에 마음을 기쁘게 해줄 아내와 아이들이 없어. 그러니까 동생이 자고 있을 때 내 밀을 그 아이 밭에 갖다 봐야지." 독신인 동생 역시 그날 밤잠을 못 이루고 생각에 잠겼다. "형은 가족이 많으니까 나보다 필요한 게 많을 거야. 형이 잘 때 내 밀을 형의 밭에 갖다 봐야겠어." 그렇게 형제는 밖으로 나가 밀단을 모아 상대의 밭에 옮겨 놓으려다 두 땅의 경계선에서 서로 마주쳤다. 그리고 그들은 상대방이 들고 있는 밀을 바라보며 흐뭇한 웃음을 지었고 포옹하였다. 전설에 의하면 그 후 몇 년 뒤에 형제의 땅 경계선에 예루살렘 사원이 세워졌고 형제가 포옹했던 곳에는 제단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다. 사랑은 우리를 절망과 슬픔에 빠뜨리는 일이 없고 매우 강력한 힘으로 우리 사이의 차이를 메워준다. 진정한 성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노력에 의해 이루어 내고, 그 기쁨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다.

군 조직은 유사시에 운명을 함께할 전우들이기에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그 어느 조직보다도 더 연대하며 단단하게 이어져 있어야 한다. 소중한 가치를 자랑하는 군 조직사회에서는 구성원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을 갖추어야 한다. 서로를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후원하고 지지하며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지도력을 발휘할 때 비로소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풍요로운 삶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김치 vs 중국의 파오차이

사라져가는 중국 요리이름 이야기 ②

김미경(한국전통문화대학교 겸임교수)



위와 같은 음식을 가리키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중국의 파오차이는 한국의 김치와는 확연히 다르다. 한국이 독창적으로 만든 한국의 김치와 절임으로 만들어진 중국의 김치인 파오차이가 다른 음식이라는 것을 세계에 알리고 홍보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한국세시풍속사전의 김치의 유래를 살펴보면, 침장채(沈藏菜) 또는 장채(藏菜)라고도 표기하여 김장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중략) 조선시대에는 김치무리를 저(菹)라고 표기하였는데 이는 중국



중국의 파오차이

우리나라의 고유 음식인 김치는 한국과 한국인에 맞게 끊임없이 개발되고 발전하여 현재 완벽한 음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조선시대의 김치는 담채 혹은 침채로 불렸는데, 모 회사의 김치냉장고의 이름을 담채라고 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저(菹)'라는 중국의 파오차이는 지금도 중국 곳곳에서 침채(沈菜), 염채(腌菜)라는 음식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파오(泡)라는 요리법은 물(액체)에 절여 만든 음식을 가리킨다.

저자는 한국의 고유 음식인 김밥, 불고기, 잡채 같은 음식의 영어식, 중국어식 번역어가 제대로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김밥의 경우, 영어권에서는 캘리포니아 롤(California roll),



한국의 김치

중국어권에서는 권반(卷飯)이라고 번역한다. 캘리포니아 롤의 유래는 1963년 로스앤젤레스의 리틀도쿄에 개점한 '동경회관'에서 만든 이름으로, 일본 김초밥의 일종이다. 사실 캘리포니아 롤로 번역되는 김밥이 한국이 아니라 일본 음식으로 알고 있는 미국인이 적지 않다. 김치의 경우를 보면, 영어권에서는 다른 비슷한 음식 이름으로 번역하지 않고(물론 비슷한 다른 음식이 없기도 하다) 고유명사인 Kimchi로 그대로 번역하는데, 이러한 이유로 중국어권에서도 파오차이(泡菜)로 번역하지 말고 김치라는 명칭의 고유명사로 번역해야 하는 것이 맞다.

중국에서 예로부터 내려오는 김치인 파오차이는 알고 보면 염채(腌菜)인데, 중국에서 말하는 중국의 김치, 즉 염채는

중종 13년(1518)의 『벽온방(辟瘟方)』에 “신무(신무) 담채국(菹汁)을 집안 사람 다 먹어라.”라는 말이 있고 중종 22년(1527) 『훈몽자회(訓蒙字會)』에서는 저(菹)를 염채(腌菜)라고도 하였으며, 숙종 8년(1682) 『역어유해(譯語類解)』에서는 함채(鹹菜)로도 표기하였다.

참고자료

한재숙, 한경필, 이진식, 김영진 <중국 북경 지역 대학생의 김치에 대한 인식조사> 한국 식생활문화학회지, 제20권, 제6호
유중혜, 안순태, 부천초, <K-food 속성과 맛에 대한 탐색적 연구: 관여도와 친숙도에 따른 빅데이터 분석> 한국광고홍보학회지, 제22권, 제1호
한국세시풍속사전, baidu, naver



알레르기성 비염

건강상식

국군의무학교 원무행정교관 대위 박찬주



봄은 외부활동에 좋은 계절이라 생도 여러분들이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계절이겠지만, 모든 일에는 예외가 있는 법!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고통받는 생도에게는 TIP을 얻는 시간으로, 또는 알레르기성 비염을 앓는 타인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이란?

특정 외부 물질(항원)에 대해 코의 점막이 과민반응을 일으켜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장기간 방치할 시 축농증으로 발전하여 집중력 저하와 건망증 등이 나타날 수 있음



- 주 증상: 발작적인 재채기, 물처럼 흐르는 맑은 콧물, 코막힘
- 부 증상: 눈의 가려움 및 충혈, 후각기능 감퇴
- 합병증: 다크서클, 구강호흡으로 인한 구강 건조 및 치아 손상, 축농증, 중이염

고통받는 비염 환자를 위한 3분 지압법 소개



삶의 질을 급격히 저하시키는 대표적인 질환 알레르기성 비염! 설상가상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오해받는 비염 환자들에게 따뜻한 한마디와 지압법을 소개해주면 어떨까요?!



새로운 출발! 새로운 도전!

동문(同門)의 소리

이 의 공예 소령, 원광디지털대학교 부총장)



육군3사관학교는 장교를 꿈꾸는 민간 대학생들이 편입학시험을 거쳐 입교 후 5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는다. 이후 일반학과 유격·공수훈련 등 생도과정을 마치면 작은 호랑이 육군 소위로 임관시키는 장교양성의 요람이다. 이번 지면은 장교로 첫발을 내딛은 생도들이 군인으로서 새겨야 할 가치에 대하여 역사 속의 인물들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미국의 조지 워싱턴은 영국과의 독립전쟁에서 위기의 미국을 단합으로 이끌어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영국을 상대로 독립을 이룩한 건국의 아버지로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다. 미국의 윌리엄 트레고의 유화작품 "밸리포지로의 행군"에는 워싱턴 장군이 행군 중인 병사들 곁에서 자신의 백마 위에 앉아 경건한 모습으로 병사들을 응시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림은 미국이 1775년 4월 19일 독립

전쟁 개전 된 이후 펜실베이니아를 지키기 위해 워싱턴이 12,000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1777년 11월부터 1778년 6월까지 밸리포지에서 장기주둔을 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담고 있다.



당시에 미국인들은 독립지파와 영국 지지파로 나뉘어 있는 상황이었으나, 대륙 의회가 전비조달을 명목으로 민심에 역행하는 강압적 세금정책을 밀어붙이다 보니 그나마 독립군에 우호적이던 민심까지 이반되어 독립군의 사기는 형편없는

상황이었다. 당시 주민들은 영국을 모국으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영국의 강압과 부당한 세금추징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영국에 등을 돌린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륙 의회가 단행한 강압적 세금징수는 영국과 다를 게 없다는 반감으로 이어졌다.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를 보유한 영국을 상대로 전쟁을 수행 중이던 독립군에게 주민의 절대적 지지는 승리를 위한 최후의 보루였다. 절망적 상황에 놓인 밸리포지의 독립군은 워싱턴을 주시하게 된다. 그 당시 병사들은 승산 없어 보이는 전황을 인지하고 내면적으로 전의를 상실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워싱턴은 독립에 대한 염원과 사령관에게 주어진 명예로운 책임완수 그리고 전쟁에서의 승리만을 생각했다. 워싱턴은 장교가 준수하여야 할 원칙을 고수하고 이론과 실천이 하나 되는 자세를

유지했다. 당시 미국인들은 이러한 워싱턴의 면모를 확인한 이후 워싱턴 주둔군에는 자원입대와 주민들의 군수품 지원행렬이 이어졌다. 병사들의 사기도 하늘을 찌를 듯 충전하자 밸리포지 주둔 이후 독립전쟁의 전세는 독립군 쪽으로 기울게 된다.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미국인들은 워싱턴에게 대륙의 왕으로 등극해 줄 것을 간청한다. 워싱턴은 사양 끝에 대통령 즉위 8년 후, 권좌에서 스스로 내려와 정권을 이양하여 처음처럼 변함없는 자세로 공직을 마무리했다. 워싱턴이 남긴 이러한 유산은 현재 미국에서 불문율로 남아 4년 중임의 대통령 임기가 준수되고 있으며, 미국이 민주주의의 리더국이 되는 데 결정적으로 일조하였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 제2항은 "군인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생도들이 새로운 시작과 도전의 위치에 설 때마다 가슴에 새기고, 신성한 의무행을 위해 수신과 검약 그리고 청렴한 생활을 이어간다면 자신 있게 원칙을 고수하고 신성한 의무를 이행하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장교로 거듭날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여러분의 앞날에 존경과 응원을 보낸다.

제36차 정기총회

지난 4월 9일 동문회관에서 제36차 정기총회가 실시됐다. 한동주 총동문회장, 김주원 회관운영위원장 등 12명이 참석하였고, 각 기 회장 20명이 화상으로 참석했다. 정기총회 회의 전 자랑스러운 3사인상 수상식을 먼저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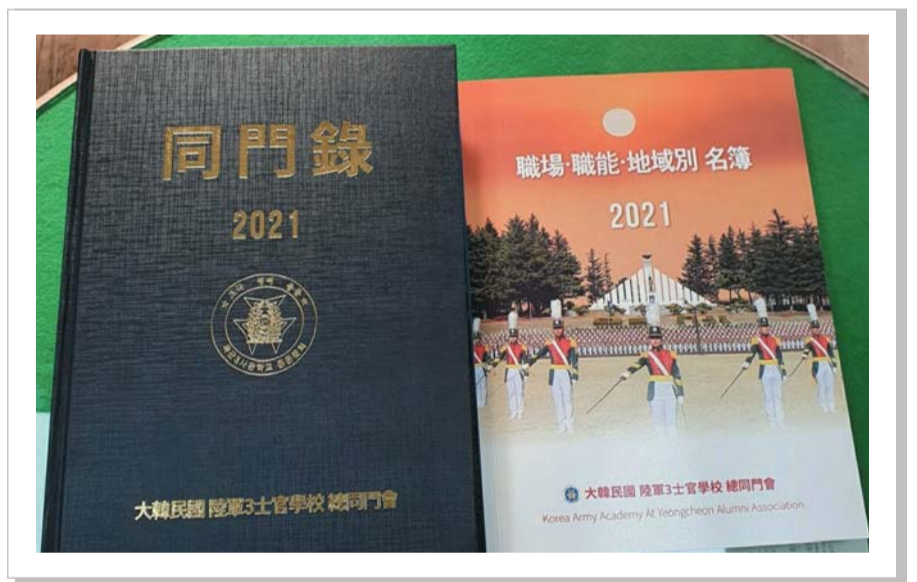
수상자는 4기 맹진호, 12기 정인하, 15기 최춘식, 25기 심영석 4명의 동문이 수상했다. 이후 총동문회장의 개회선언과 인사말을 시작으로 업무보고, 감사보고, 안전심의, 강조 및 참조 사항 순으로 정기총회가 마무리되었다.

3사 총동문회



▲ 자랑스러운 3사인상 수상자(왼쪽부터 25기 심영석, 15기 최춘식, 4기 맹진호, 12기 정인하)

2021년도 총동문회 동문록 제작



▲ 2021년도 총동문회 동문록

총동문회는 4~6년 주기로 전체 동문들의 주소록을 최신화하여 동문록을 제작해왔는데, 2016년 발간 이후 2021년 3월에 총동문록이 발간되어 배포되었다. 이번에 발간된 동문록은 국내·외는 물론, 각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문의 정보를 졸업 연도, 직장·직능·지역으로 구분하여 수록함으로써 동문 간의 소통수단, 비즈니스 등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동문록은 모교발전과 총동문회 발전을 위해 기여할 것이다.

3사 총동문회

동문록이 필요하신 동문들은 아래 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문록 : 6만원
- 은행명 : 신한은행
- 계좌번호 : 100-034-786752
- 예금주 : 육군3사관학교 총동문회 한동주
- 입금지명 : 성명(기수)
- 문의전화 : 02-534-6335



총동문화-강동경희대학교병원 MOU 체결

지난 4월 2일 총동분회와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한 상호 발전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날 협약을 통해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은 총동분회 소속 인원 및 직계가 족에 대해 진료비 우대, 접수절차 우대 서비스 등 의료복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3사 총동문화



▲ 한동주 총동문화회장(좌)과 강동경희대학교 김기택 원장(우)이 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전역 장병 대상 취업 지원 대책 논의

육본 전역장병지원처장, 각 동문화 사무총장들과 간담회 주관

지난 3월 5일, 육군회관에서 육본 전역장병지원처장(2급 구영희)은 각 동문화(육사, 3사, 학사, 국간사 등), 육본 취업지원센터장, 취업지원과장과 함께 전역 장병에 대한 취업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장기 복무 장교의 사회 진출 제한사항을 개선하고, 전역 장병을 대상으로 한 국민건강보험 제도개선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향후,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면 총동문화장들을 육본에 초청, 각 동문화와 MOU를 체결하고 전역 장병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만들 예정이다.

3사 총동문화

1공수여단 임채현 중령(38기), 발전기금 100만 원 전달



▲ 임채현 중령(우측에서 3번째)이 총동문화 발전기금 100만 원을 전달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1공수여단에 근무하고 있는 임채현 중령(38기)은 휴가 기간 중 총동문회를 방문, 발전기금 100만 원을 전달해 동문화 사랑을 실천했다.

3사 총동문화

55기, 동문화관 건립 단체 투자금 500만 원 전달



▲ 55기 동기회장 이승환 중위(우측)가 한동주 총동문화회장(좌측)과 함께 동문화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55기 동기회장 이승환 중위는 동기생들을 대표하여 총동문회를 방문, 동문화관 건립 단체 투자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이승환 중위는 "55기들이 총동문회를 위해 힘을 보탬 수 있어 뜻깊고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3사 총동문화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모집

대학생이 지원가능한 세계 유일의 편입학 사관학교!



— 호국간성의 요람 —
육군3사관학교 
 Korea Army Academy at Yeongcheon



원서접수 : 2021. **4.26**(월) ~ **5.31**(월) • 접수 : 인터넷(www.univapply.co.kr)
 • 문의 : www.kaay.mil.kr 054)330-3720~23

2022학년도 **정시생도 59**기 • 학력 : 4년제대학 2학년 이상 수료(예정) 및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 연령 : '97. 3. 1 ~ '03. 2. 28 출생의 대한민국 국적의 미혼남·여

2023학년도 **예비생도 60**기 • 학력 : 2·4년제 대학 1학년 재학생, 3년제 대학 2학년 재학생
 • 연령 : '98. 3. 1 ~ '04. 2. 29 출생의 대한민국 국적의 미혼남·여

학교 발전재단 소식

2021년도 학교발전기금 참여현황

'21. 3. 1~ '21. 4. 25까지 기부현황입니다.

※ 범례 : 해당기간 기부액(총 기부액)

총 자산 82억 1,400만원(2021.4.25 기준)

■ 단체

(주)대호브리아노 500 (1,500), 국민은행 영천지점 1,000 (9,700)

■ 3사관학교 발전과 함께하는 군간부

이희범(육사#41) 2(38), 최완규(육사#44) 1(122), 어윤태(육사#45) 10(120), 신상범(육사#41) 2(3), 김호길(육사#48) 2(49), 두석주(육사#51) 2(188), 이우진(육사#54) 2(60), 조상근(육사#56) 2(133), 변용성(육사#58) 2(99), 손창호(육사#58) 1(87), 이귀현(육사#58) 2(99), 이주실(육사#58) 2(78), 김대영(육사#59) 2(166), 김진찬(육사#61) 2(63), 홍희중(육사#61) 2(95), 이한우(육사#63) 2(23), 오민경(육사#63) 2(38), 오범진(육사#63) 2(16), 홍인재(육사#63) 2(28), 문준호(육사#67) 2(41), 이찬우(육사#68) 2(38), 권성진(육사#69) 2(26), 강세혁(육사#71) 1(1), 한덕수(학군#26) 2(105), 남기웅(학군#29) 2(10), 서필석(학군#34) 2(10), 임문택(학군#34) 2(4), 이두진(학군#35) 2(16), 박홍렬(학군#37) 2(28), 송경재(학군#37) 2(122), 이종민(학군#44) 2(21), 김나람(학군#47) 2(29), 정우람(학군#46) 2(16), 이세훈(학군#48) 2(21), 홍현신(학군#48) 2(19), 나상철(학군#49) 2(13), 윤정훈(학군#50) 2(25), 이선호(학군#51) 2(8), 최재호(학사#29) 2(122), 최용식(학사#33) 2(24), 이준수(학사#35) 2(106), 김기호(학사#37) 2(6), 예한석(학사#37) 2(24), 윤경주(학사#46) 2(12), 임도현(학사#54) 2(10), 구주현(학사#55) 2(24), 박수영(학사#56) 2(16), 성현애(학사#56) 2(44), 강진선(학사#57) 2(10), 심정현(학사#58) 2(32), 김소현(여군#46) 2(17), 김형태(간부#22) 2(52), 강찬영(군종#61) 2(28), 최윤정(간사#38) 2(37), 송소연(간사#58) 2(18), 이대희(준위) 2(27)

▶ 부서관 : 진정철(원사) 2(71)

▶ 군무원 : 김인수 2(34), 류재은 2(190), 안영주 2(40), 양성우 2(62), 유정호 2(15), 정해란 2(19)

■ 졸업·재학생도 부모('21.3.1~'21.4.25 기부명단)

▶ 졸업생 부모(졸업기수/관계)

조경해 (#45 황정태 모) 5(785), 성동모 (#50 성열환 부) 4(198), 안순봉 (#51 박상응 모) 20(350), 윤우상 (#51 윤형민 부) 2(86), 김현미 (#52 오치원 모) 2(44), 이영미 (#52 황성규 모) 6(286), 정정화 (#52 조강현 모) 1(337), 박일심 (#53 정필승 모) 4(118), 이영빈 (#53 오경철 모) 2(42), 조정숙 (#53 유영빈 모) 4(114), 윤명남 (#54 이지호 모) 5(245), 한성희 (#54 한영빈 부) 3(34), 홍성은 (#54 홍동민 부) 1(232), 서완수 (#55 서지찬 부) 7(74),

유현구 (#55 유경은 부) 2(128), 정원섭 (#55 정준영 부) 2(114), 한순옥 (#55 이현중 모) 200(2400), 고경옥 (#56 최현준 모) 6(57), 송학빈 (#56 송용준 부) 5(60), 정희숙 (#56 배웅희 모) 30(1,140)

▶ 재학생(4학년/57기) 학부모(입금자 성명)

강석근, 강해영, 김경남, 김근택, 김순말, 박경석, 박동현, 심영선, 양내석, 오유미, 이윤주, 임승찬, 정재현, 지미리아, 한성희

▶ 재학생(3학년/58기) 학부모(입금자 성명)

강문찬, 김갑동, 김지화, 김병기, 김용수, 김용정, 박상훈, 문현아, 염기성, 윤석규, 이양숙, 이정기, 이기남, 정선아, 정양원, 정원일, 정영훈, 조동기, 조인호, 지상현, 김도희, 최태호, 한민근, 허지은, 황보순호, 황진희

※ 개인 기부현황은 발전기금 홈페이지(www.kaayf.or.kr) 내 기부 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졸업생(개인) 참여현황 ('21.3.1~'21.4.25 기부명단)

▶ 1기 김용하 4(142), 남훈조 22(1,283), 임관택 2(76), 최익환 2(78)

▶ 5기 김영찬 3(112), 김일순 10(399)

▶ 9기 권영호 5(395), 김현기 6(1,169), 윤지환 6(1,32), 이환희 10(95), 최병학 5(1,210)

▶ 13기 문성목 20(200)

▶ 14기 김종환 2(52), 안호 2(1810), 이순진 20(749), 이용진 10(230)

▶ 15기 김상인 2(521)

▶ 16기 원홍규 10(300), 윤영식 10(210), 이종우 1(155), 황병태 1(304)

▶ 18기 구연덕 1(124), 금용백 6(558)

▶ 19기 이경희 1(168), 이종형 6(241), 이창호 6(564), 홍성식 2(191)

▶ 20기 김윤희 1(62), 박권순 1(143), 서정열 2(473)

▶ 21기 신철수 2(1,080)

▶ 22기 권순태 2(48), 김면수 5(45), 이진성 2(256), 정경호 2(40), 조태환 1(137), 천병규 10(420)

▶ 23기 김태일 2(226), 배요식 2(238), 신영찬 2(68), 오승욱 2(254), 정철재 2(126), 최승환 1(2), 허강수 8(271)

▶ 24기 강현권 50(200), 박종만 4(44), 권금락 4(276), 권오봉 1(209), 김도협 2(228), 김성래 4(22), 김지영 5(933), 남용구 5(270), 류병수 5(5), 모경원 2(223), 박세철 2(66), 박원석 5(6), 방성태 2(77), 안인준 1(90), 이문희 2(91), 이석근 5(5), 정정현 2(187)

▶ 25기 김남용 2(130), 문봉성 2(148), 배현국 10(10), 이은전 2(42), 이종현 2(47), 장광선 6(36), 장무수 2(45), 전희준 2(302), 조재희 2(119), 홍은표 1(196)

▶ 26기 고창준 10(230), 서채원 8(15), 양성안 1(8), 유근환 2(31), 이덕우 1(122), 이완주 4(123), 이태인 4(54), 임우영 2(240), 장영민 2(119), 함운식 2(3)

▶ 27기 김덕중 2(64), 김성오 4(22), 김용범 4(12), 김지덕 2(18), 김호복 8(241), 나현민 100(100), 석수열 2(41), 안병욱 2(165), 원희문 10(225), 이화순 2(235), 전태환 200(800), 정월균 2(40)

▶ 28기 권승영 1(23), 권양철 2(104), 김진길 2(76), 김창현 2(162), 박기수 2(87), 박용섭 4(165), 서청수 2(168), 유정일 2(33), 윤석찬 1(136)

▶ 29기 김강식 2(241), 김용식 2(70), 김태영 4(22), 박성훈 2(149), 박태용 2(128), 심정호 1(520), 이상일 2(184), 이의규 2(111), 임성호 2(160), 최인섭 2(122), 현태식 2(146)

▶ 30기 김종권 2(80), 김효성 2(40), 남진오 2(51), 이병길 2(15), 이진 2(145), 임상달 2(115), 주경호 2(109), 홍상범 2(33), 함민호 2(96)

▶ 31기 권동호 4(52), 김민식 4(90), 김영태 2(177), 김희엽 2(222), 염향수 2(132), 이재춘 2(206), 이훈복 2(44), 전경인 2(29), 최대집 2(44)

▶ 32기 권관덕 2(304), 김희용 2(109), 사인우 1(132), 송진수 5(66)

▶ 33기 김남식 4(158), 김상선 3(140), 김성근 4(136), 김현규 4(384), 남석진 2(134), 노일 6(152), 안경일 2(231), 안준영 6(116), 이정표 6(65), 조재봉 2(106), 홍종원 2(26)

▶ 34기 권성진 1(126), 김기수 2(177), 김운성 1(40), 김홍식 6(423), 이무이 2(400), 임창훈 2(77), 정창근 2(102), 정춘황 2(53), 조수창 2(177), 홍영기 2(21)

▶ 35기 김경철 2(5), 김병수 2(77), 김수열 2(65), 박병준 6(302), 박성현 2(17), 박시근 2(179), 송명성 4(54), 이문희 2(145), 임창규 2(103), 장춘삼 2(140), 전성광 2(34), 정영석 2(102), 정호준 4(82), 하중수 3(21), 한종훈 4(359)

▶ 36~58기 기부현황은 www.kaayf.or.kr 또는 "충성대" 스마트폰 어플에서 확인바랍니다. **미결제 한도로 부득이 모든 기부자 명단을 기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양해 바랍니다.**

발전기금 참여 안내

입금계좌

육군 3사관학교 발전기금(예금주)

• 농협 : 766-01-003094 • 국민은행 : 620-01-0861-994

• 우체국 : 900969-01-003463 • 대구은행 : 049-05-005898-6

- 기부자명은 띄워쓰기 없이 6자 이내로, 또는 전화연락
- 졸업생 → (예시) 00기김삼사 우인/단체 → 입금 후 재단연락
- 재학/졸업생 부모 → (예시) 58박조국부, 58이충성모 / 00홍길동부(숫자는 자녀 기수)
- 세금정산용 영수증 발급 및 기타문의는 재단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 ☎ (054) 330-3180, 3182



“참여자의 소중한 정성은 학교발전과 국방우수인재 양성에 큰 힘이 됩니다”

